

# 아이 안고... 빗속에서... “잊지 않겠다” 매주 촛불 추모



## ③ 광주시민상주모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면 광주고등 법원 앞길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노란색 피켓을 든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들이다. 지난해 6월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날부터 시작,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뤄진 날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법원 앞으로 나왔다. 지난해 참사 이후 3년 상을 치르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모임은 당시 부르짖었던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광주시민상주모임 이진숙(여·45)씨는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생각에 가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에는 괜한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다. 한동안 간혹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철렁 주저앉았다가 아이 얼굴, 목소리를 듣고서야 안정되기도 했

## 자발적 시민 모임 22명서 400여명으로... “3년상 치를 것” 재판 있는 날은 노란 우산 들고 묵묵히 피해자 가족 응원

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말만 믿고 있던 아이들을 보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 것도 그때였다. 희생당한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주 촛불을 밝혔던 것이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녀가 운영하던 카페는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이 됐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가진 광주시민 모임 회원들이 카페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모인 시민들이 광주시민상주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작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자녀를 둔 30~40대 부모들, 20대 청년, 10대 청소년 등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도 없다.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만 힘을 보태고 있다.

저녁시간 촛불을 들고 행사가 나가는 것조차 힘든, 이제 막 결혼마를 댄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겐 이씨의 카페가 주 활약장소다.

17개월 된 딸을 안고 찾아온 박정희(여·36)씨도 그렇게 참여했다. 박씨는 주변 육아모임 회원들과 함께 시민상주모임을 찾았다. 활동을 하다가 아예 지칭 ‘도란도란’이라는 팀을 만들어 노란 추모 리본을 만들고 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는 그때 뭐했어?’라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고 싶어 참여했지만 이 곳을 찾아 활동하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있다는 게 그녀 설명이다.

초창기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희생됐는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엄마, 아빠들 22명이 모여 촛불을 밝혔던 모임은 벌써 4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자녀를 둔 회원들의 경우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하면 도저히 방관할 수 없었다고 한다.

회원들은 세월호 재판 기일에 맞춰 법원 앞길에서 노란 우산과 피켓을 들고 피해자 가족들을 맞았다. 안전~진도 팽목항을 오가는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머무르며 위로하기도 했다.

그렇게 1년이 흐르면서 단원고 희생자

를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움을 떨쳐낼 길이 없어 쥐어 든 촛불,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들은 세월호 3년 상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풍암·일곡·수완 등 마을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있다.

엄마들과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들 사이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 달려와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민상주모임은 법원 앞에서 광주 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매주 ‘세월호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움을 떨쳐낼 길이 없어 쥐어 든 촛불,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들은 세월호 3년 상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풍암·일곡·수완 등 마을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민상주모임 제공>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3년 상을 치면서 구조적·조직적 유착 행위, 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대응 등 세월호 침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더 나아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

## 고교생 고용 상습폭행 양식업자 사전구속영장

장흥경찰은 14일 방학기간 고용된 고등학생들을 숙소와 작업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매생이 양식업자 김모(2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7일부터 2월24일까지 장흥군 자신의 매생이 양식장에서 아르바이트 고교생 5명의 머리와 팔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술에 취해 학생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찾아와 ‘여학생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속식제공에 하루 10만 원을 조건으로 구인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교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동료 재소자 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4일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수치심, A씨가 여성을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밤 11시께 순천교도소에서 B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동료 재소자 2명을 모두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아파트에 다이어마이트 ‘화들짝’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육질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폭발물인 다이어마이트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운모(39)씨의 아파트 육질 천장에서 산업용 다이어마이트인 뉴마이트(32mm×290mm)와 뇌관 10개가 발견됐다는 것.

○이번에 발견된 다이어마이트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으로 당시 뇌관이 분리돼 있어 폭발 위험은 없는 상태였는데, 담당 경찰은 “다이어마이트 포장지가 2004년 6월 달력인 점으로 미뤄 이전 입주주민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박기용기자 pboxer@

## 세월호 재판 이번엔...

###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28일 항소심 선고

#### 살인죄 인정 여부 주목

이번에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국민 법정에 맞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세월호 침몰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세월호 승무원 및 청해진해운 직원 등 관련자들의 항소심 진행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당장, 이준석(69) 선장 등 15명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핵심 쟁점인 이 선장의 ‘퇴선 방송지시’ 여부를 비롯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인정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1심에서 상당수 선원들에게 적용됐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특가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형량과 연계해 주목할만하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72) 대표 등 선사와 고박업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달 17일부터 3차례 공판이 열렸다.

아울러 선박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5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부실 구조활동 등으로 비판받았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7)씨에 대한 첫 항소심도 이날 오후 4시 열린다.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은 이준석 선장 선고일인 28일 오후 4시 처음 진행될 계획이다. 구명장비 점검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도 같은 날 오후 2시 첫 재판이 열린다. 언더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재판은 관할 위반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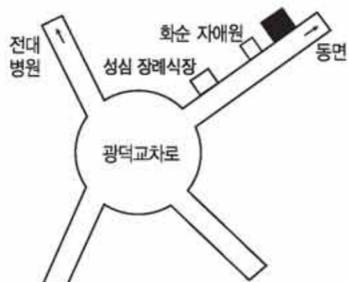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걸어서 팽목항까지 지난 10일 익산에서 도보로 이동해 16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려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원불교’인 30여명이 14일 오전 광주지역을 지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3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29평
- 20층 중 10층, 양동 하천방향 원룸형, 내부 깨끗
- 현, 보5백에 월 50만원 임대 중
- 대출 3000만원 가능
- 매매가 7200만원(일시불 조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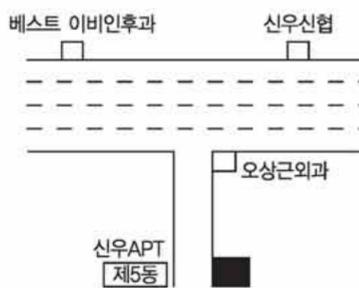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주인직매 H. 010-3605-5000

- 17평
- 20층 중 10층, 창가 코너, 전망 좋음
- 전체 울수리, 원룸형, 즉시 입주
- 대출 2000만원 안고
- 매매가 - 5200만원

## 광전파크 “빌라”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가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64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 / 임정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허실 분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